

『續陰晴史』를 통해 본 20세기 초 김윤식의 智島 유배생활과 島嶼地域 사회상 변화*

최 성 환**

목 차

| | |
|-----------------------|------------------------|
| I. 머리말 | Ⅲ. 20세기 초 도서지역 사회상 변화 |
| Ⅱ. 김윤식의 지도 유배생활과 그 특징 | 1. 지도군 설립 이후 섬사람들의 생활상 |
| 1. 유배지에서의 일상 | 2. 목포개항의 영향과 근대화 |
| 2. 지도 유배생활의 특징 | Ⅳ. 맺음말 |

[초록]

이 논문은 구한말의 정치사상가 金允植의 일기인 『續陰晴史』중 智島 유배시절 기록을 분석하여, 20세기 초 도서지역 유배인의 생활양상과 사회상 변화를 고찰할 것이다. 김윤식은 1901년부터 1907년까지 지도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다. 이 시기는 1896년 智島郡이 설립되고, 1897년 木浦開港이 이루어진 직후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 유배생활 동안 감시나 통제로 인한 불편함은 없었다. 차별화된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 섬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냈으나 제자를 육성하거나 交友關係를 형성하지는 않았다. 그의 사상이 智島 사람들의 학맥과 대립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섬사람과 유배인의 교류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님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사례이다. 둘째, 유배지에서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상업 활동을 전개했다. 지역 특산품인 소금과 민어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전통적인 섬 유배인의 생활상과 매우 달라진 점이다. 『續陰晴史』의 내용을 통해 20세기 초 섬 사회상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도군이 설립된 이후 주민들의 생활상은 더욱 열악해졌다. 1901년 ‘智島教案’ 사건과 1902년 임자도 민란이 발생했다. 반면, 목포개항은 섬사람들의 생활상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목포와의 왕래가 빈번해졌고, 근대문물의 보급이 이루어졌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근대적인 교육기관인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1-A00007).

**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baguni11@naver.com.

智明學校가 설립된 것이다. 불과 10년 전 초대군수였던 오형묵이 鄕校에 힘을 기울
였던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

주제어 : 김윤식, 『續陰晴史』, 유배, 智島, 목포개항, 입자도 민란, 섬

I. 머리말

조선후기 섬 유배인에 대한 문제는 ‘섬’이라는 공간이 지닌 고유의 인문환경과 사회
상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대상이다.¹ 두 가지 맥락에서 매우 유용하다.² 첫째는
유배인과 섬사람들의 접촉 양상에서 나타나는 ‘소통과 교류’의 측면을 재조명하는 것
이다. 둘째는 유배인 기록을 통해 ‘도서지역의 사회상’을 살피는 것이다. 연구자가 최
근 주목하고 있는 지역은 현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한 智島이다.³ 유배인과 섬사람들
의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이며, 관련 기록이 비교적 다양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도는 무안반도 서쪽에 있는 섬이다. 지리적인 면에서 육지와 근접해 있고, 해로가
발달하여 외부와의 왕래가 편리한 지역이었다. 남쪽의 다도해와 내륙인 영광·무안 등
과 바로 연결되는 장점이 있고, 뱃길이 한양까지 연결되어 있었다.⁴ 이러한 장점을 활
용하기 위해 1682년에 智島鎭이 설치되었다.⁵

지도진이 설치된 이후 유배인들이 보내지기 시작했다.⁶ 관찬기록에서 확인이 되는

-
1. 전남지역 유배인에 대한 개요는 다음의 논문이 참조가 되었다. 김경옥(2010), “조선후기 유배인
의 현황과 문화자원의 활용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40, 호남사학회, 150-156.
 2.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관련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2011, “조선후기 추자도 유배인의 추이와
생활양상”, 『도서문화』. 37,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 2010, “유배인 김약행의 <遊大黑記>를
통해 본 조선후기 대흑산도”, 『한국민족문화』. 36, 부산대 민족문제연구소 ; 2010, “19세기 초 문
순득의 표류경험과 그 영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13-1, 역사문화학회.
 3. 최근 지도 유배인 김평묵의 사례를 활용한 연구를 시도한 바 있다. 2014, “頭流壇을 통해 본 金平
默의 智島 유배생활 : 그 소통과 영향”, 『민족문화논총』. 56,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4. 무안 해제와 마주하고 있는 ‘糠山津’을 이용하여 수시 왕래가 가능했고, 지도 북쪽 봉리 참도나
루를 이용하면 영광지역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지도 서남쪽에 있는 ‘允郎浦’가 발달 해 있었는
데, 이곳은 과거에 “남쪽에서 한양으로 오가는 배가 머물던 곳”이었다. 지도의 공간적 특징은 앞
주의 논문, 461-469쪽 ‘2장 지도의 인문·공간적 특징과 유배인의 추이’를 참조하기 바람.
 5. 『智島郡邑誌』, 建置沿革 참조.

지도 유배인의 숫자는 약 76명이다.⁷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各島配囚案』(1898), 『全羅南道智島郡定配罪人到配年月日○授主人姓名並錄成冊』(1899년), 『島流配案』(1900), 『流配案』(1905) 등의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숫자이다. 지도 유배인의 추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시기적으로 1896년 지도군이 설치된 이후 유배인의 숫자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총 43명의 유배인이 이시기에 보내졌다. 지도군 설립 후 군청소재지가 되었기 때문에 유배인 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20세기 초 도서지역 유배인의 생활양상과 사회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金允植(1835-1922)의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⁸ 구한말의 정치사상가인 김윤식은 1901년부터 1907년까지 지도에서 유배생활을 했다. 원래는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1896년에 “명성왕후 시해 음모를 미리 알고도 방관했다”는 탄핵을 받고 1897년 12월 20일 제주도에 종신 유배되었다.⁹ 유배지가 제주도에서 지도로 옮겨지게 된 것은 1901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濟州教案¹⁰의 여파였다. 제주도가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유배인 관리차원에서 다른 섬 지역으로 분산시켜 이배하게 된 것이다.¹¹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분석 대상은 김윤식의 일기인 『續陰晴史』와 관련 기록이다. 『속음청사』는 1887년 5월 29일부터 1921년 12월 31일까지 35년간의 일기이며, 총 18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¹² 그 중 10권 일부와 11권·12권 부분이 智島 유배생활기

6. 장선영(2001), “조선시기 流刑과 絶島定配의 推移”, 『지방사와지방문화』. 4-2, 역사문화학회, 189쪽.
7. 이는 지도가 유배된 장소임이 확인되는 사례이다. 유배장소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도에서 유배생활을 했을 것이다.
8. 그동안 김윤식에 대한 연구는 그의 사상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제주도·지도 등 섬에서 오랫동안 유배생활을 했지만, 섬 문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음 논문이 유일하다. 姜在彦(1998), “濟州島 有配期の 金允植”, 『탐라문화』. 7,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이 논문은 제주시절 발생한 민란에 대한 김윤식의 기록을 분석한 것이다.
9. 『고종실록』36권, 1897년 12월 20일 4번째 기사.
10. 1901년에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외래종교인 천주교에 대한 반감과 제주도 경제권을 둘러싼 토호세력과 중앙에서 파송한 관리와의 갈등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
11. 『고종실록』41권, 1901년 6월 7일 1번째 기사.
12. 『續陰晴史』는 1970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續陰晴史』상하 2권으로 영인본을 발간하였다. 이후 국역본은 지방문화원의 향토자료발간 사업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제주문화원은 제주 유배시절에 해당하는 1897년 12월부터 1901년 7월까지 기간 동안의 일기를 번역하여

간이다. 1901년 7월 15일부터 1907년 7월 5일까지에 해당된다. 햇수로 7년, 만 6년 동안 현 신안군 지도읍에서 생활하였다. 김윤식의 일기는 도서해양문화 연구를 위한 사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섬 주민들과의 교류와 유배시절 견문한 내용이 풍부하여 서남해 도서의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원천적인 자료가 된다. 『속음청사』 외에도 지도유배시절에 작성한 기록으로 「東菴稿」가 남아 있다. 「동둔고」는 1901년 7월부터 1907년 6월 사이에 지은 시로 구성되어 있다.¹³ 지도 도착 당시 감회, 마을 풍속, 섬 사회상에 대한 글이 담겨있어 『속음청사』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분석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김윤식 유배생활 양상에서 발견되는 구체적인 특징을 당대의 섬 문화와 관련하여 살피는 것이다. 둘째는 도서지역의 사회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섬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윤식이 지도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시점은 1896년 智島郡이 설립되고, 1897년 木浦 開港이 이루어진 이후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러한 배경이 섬 유배인의 생활양상에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지, 도서지역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는지를 김윤식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보겠다.

Ⅱ. 김윤식의 지도 유배생활과 그 특징

1. 유배지에서의 일상

김윤식은 제주에서 이배되어 1901년 7월 15일(음력 5월 30일) 지도에 도착하였다. 당시 67세의 고령이었다. 적거지는 菴谷村으로 현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에 해당한다. 내양리는 지도읍사무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5.5km 떨어져 있는 지역이며, 내양·둔곡·송황·적동·가정 등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의 동쪽은 내륙인 무안 해제와 이웃해

2005년에 국역 『續陰晴史』를 발간하였다. 신안문화원은 지도 유배시절의 부분을 국역하여 2010년에 『김윤식의 지도유배일기』를 발간하였다. 본 연구자는 신안문화원에서 발간한 국역본의 연구책임을 맡았었다.

13. 김윤식의 문집 『雲養集』 권6에 수록되어 있다.

있다.¹⁴ 김윤식은 지도읍내에서는 집을 구하기 어려워 읍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둔곡에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다.¹⁵ 지도는 섬이지만 둔곡마을은 농업이 중심이 된 마을이었다. 당시 농가 50호가 있던 한적한 마을이었으며, 이 마을 끝에 김윤식의 처소가 있었다. 집안쪽 3칸, 바깥쪽 4칸 규모의 작고 누추한 土屋이었다. 읍에서 벗어난 위치였지만, 내륙인 무안 해제 지역과 왕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糠山津’이 접해있어 바닷물 때에 맞춰 쉽게 왕래가 가능한 곳이었다. 이곳은 육로로 上京할 때 건너는 나루였다.¹⁶ 둔곡마을 일대는 내륙에서 입도할 때 지도의 관문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¹⁷ 김윤식은 해배될 때까지 둔곡에서 생활했다. 다만 거처는 한차례 옮겼다. 처음에 빌린 집이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읍내에 집을 구하려고 했으나,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값도 높았다.¹⁸ 결국 둔곡마을 洞長 金璋奉의 장자인 金承旭이 거처하는 가옥을 새집으로 정하고, 집을 수리하여 사용하였다.¹⁹

일반적으로 유배인은 배소에 당도하면 관청에서 保守主人을 지정하는 것이 관례였다.²⁰ 그러나 김윤식의 경우는 스스로 처소를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가를 빌렸다”로 표현하고 있다.²¹ 마을의 장정을 고용하여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였으며, 후원에 물 길러 다니는 길을 열기도 하였다.²² 둔곡마을 洞長인 金璋奉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朝飯 역시 이 사람 집에 맡겼다.²³

김윤식은 여러 식솔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일기에 자신의 신변을 기록한 내용이 남

14. 智島初等學校·智島初等學校總同門會(2010), 『智島初等學校百年史』, 47쪽.

15. 『續陰晴史』, 1901년 7월 16일(초1일). 이하 본 각주에서 제시한 날짜는 양력이며, 가로안은 음력이다.

16. 『續陰晴史』, 1901년 7월 17일(초3일).

17. 智島初等學校·智島初等學校總同門會(2010), 앞의 책, 48쪽.

18. 1896년 지도군 설립이후 이 일대가 군청 소재지가 되면서 땅값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

19. 『續陰晴史』, 1901년 8월 1일(17일).

20. 진도 금갑도 유배시절 기록인 김약행의 『적소일기』에 잘 남아 있다.

21. 『續陰晴史』, 1901년 7월 16일(6월 초1일).

22. 『續陰晴史』, 1901년 8월 2일(18일).

23. 『續陰晴史』, 1901년 7월 17일(초3일).

아 있다. 지도로 이배되어 온지 4년과 5년이 지난 후 상황이다.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904년 음력 1월 1일

義室과 어린아이 瀛駒와 함께 산다. 영구는 금년에 6세이다. 의실의 어머니, 하녀 智順, 고용한 머슴 男福, 광양 監役 黃炳郁이 4년간 함께 살고 있다. 함께 유배 온 여러 사람들로 金思燦과 같은 마을에 산다. 鄭炳朝, 李祖鉉, 鄭白南, 姜聖馨이 읍에 살며 때때로 서로 왕래한다. 본촌의 金道信이 居停 주인이다.²⁴

● 1905년 음력 10월 1일

집안 식구는 의실과 두 아들, 瀛駒(7세), 鐵龍(2세), 의파·어린 여종 智順·順德, 고용인 任學俊이 함께 산다. 賓友는 光陽 감역 黃炳郁, 樂安 金容發, 같은 마을로 귀양 온 동료 金思燦, 읍내에 귀양 온 동료 鄭丙朝, 李祖鉉, 主事 姜聲馨, 主事 閔用勳이다.²⁵

義室은 제주도 유배시절 얻은 妻이다. 그와의 사이에 제주에서 瀛駒²⁶를 낳았고, 지도로 옮겨와 함께 살면서 鐵龍을 낳았다. 의실의 어머니²⁷도 함께 살았으며, 집안일을 돕는 여종과 남자 머슴을 별도로 고용해서 부리고 있었다. 황병욱은 김윤식의 문인으로 유배인이 아니었지만, 지도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유배인 가운데 김사찬이 같은 마을에 살았고, 읍내에 사는 정병조, 이조현, 정백남, 강성형 등과 왕래하며 친밀하게 지내었다. 김윤식은 유배인 신분이지만 수발을 돕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살았을 정도로 생활하는데 큰 제약이 따르지는 않았다. 다른 유배인 사례와는 대조되는 양상이다.²⁸

지도의 관리들은 김윤식에게 매우 우호적이었다. 유배생활 중 지도군수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 金永年, 李稱翼, 宋祥熙, 洪世永, 蔡洙康 5명의 지도군수와 교류하였다. 김윤식을 만나기 위해 지도군수가 둔곡마을로 찾아오는 경우가 빈번했다.²⁹ 군수가

24. 『續陰晴史』, 1904년 윤2월 16일(1월 초1일).

25. 『續陰晴史』, 1905년 10월 28일(10월 초1일).

26. 1899년생이며, 정식이름은 김유문이다. 이후 집안 내력을 정리하여『家乘』을 남겼다.

27. 『家乘』72쪽에 ‘光州 盧氏’라고 기록되어 있다.

28. 임자도 조희룡·김령, 지도 김평묵 등의 사례와 매우 비교되는 부분이다.

외부에 출타 후 돌아오는 길에 김윤식에게 보내진 편지를 받아와서 전달해주기도 하였다.³⁰ 심지어 유배인 김윤식에게 지도군수의 가마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³¹ 명절에는 어김없이 조기·어란·소고기 등을 보내왔고, 특별한 날이 아닌 경우에도 지도군수나 관원들이 음식을 보내주기도 하였다.³² 김윤식이 중앙정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예우가 남달랐던 것 같다.

유배지에서 김윤식의 주요 일상은 글쓰기였다. 섬 주민들과의 교류와 유배시절 자신이 견문한 내용을 매일매일 자신의 일기에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개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치적 상황변화에 주시하였고, 주요 시국사건에 대한 발단과 경과 등을 기록으로 남기며 자신의 견해도 곁들였다. 『속음청사』에는 20세기 초 격동의 한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당대 사회의 변화를 자신의 기록에 남겨 놓는다는 목적이 있었던 같다. 일기 외에 틈틈이 시문도 작성하였다. 이 시기 작성된 글은 「東菴稿」라는 이름으로 묶여져 전해오고 있다.

글 쓰는 시간 외에는 동료 유배인들과 자주 어울렸다. 종종 읍내로 출타하기도 하고 수도·임자도 등 인근의 섬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1905년 6월 11일에는 임자도에 적거하는 이종립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기록이 남아 있다.³³ 임자도는 지도군 관할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유배지였는데 당시에는 특별한 제재를 당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반면, 유배기간 동안 유람과 관련 된 특별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대개 가까운 지역의 산을 오르는 수준이었다. 頭流山을 지도군수와 함께 오르기도 하였고,³⁴ 둔곡마을에 있는 鐵馬山을 자주 찾았다.³⁵ 유독 철마산을 자주 찾은 이유는 천문동 등 약초를 캐기 위함이었다. 김윤식은 유배시절 잦은 병치레를 하였는데, 한방 처치를 위해 야산에서 자라고 있는 약초가 필요했다.³⁶

29. 『續陰晴史』, 1901년 8월 23일(초10일).

30. 『續陰晴史』, 1902년 10월 9일(18일).

31. 『續陰晴史』, 1903년 10월 27일(초8일).

32. 『續陰晴史』, 1901년 7월 19일(초4일).

33. 『續陰晴史』, 1905년 6월 11일(초9일).

34. 『續陰晴史』, 1906년 10월 14일(27일).

35. 『續陰晴史』, 1901년 10월 18일(초7일) 일기 외.

외지에서 김윤식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주변을 유람하고 유유자적 하는 모습도 남아 있다. 애국지사로 알려진 梅泉 黃玹이 찾아오자 그와 주변을 유람하고 교류하였다.³⁷ 1902년 10월 7일 방문해서 만났고, 8일에는 함께 유람을 다녔다.³⁸ 9일에는 황현이 김윤식의 적거지에서 유숙하여 밤이 깊도록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³⁹ 10일에는 마을 뒷산에 올라 함께 시를 지었고, 11일 매천이 떠나자 糠山津까지 함께 나가서 환송했다고 기록되어 있다.⁴⁰ 김윤식은 황현을 말하는 것이 매우 좋아하다고 느꼈으며, 진정한 호남의 명사라고 평가하였다.⁴¹

유배생활에 가장 큰 힘이 된 사람들은 같은 처지인 유배적객들이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며 생활했다. 유배객들이 돈을 모아 소를 사기도 하였다. “여러 謫客이 돈 5,500문을 모아서 한 마리의 작은 소를 사서 잡아 고기를 나누어 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⁴² 김윤식의 생일이 되면 모여서 축하하고 위로해 주는 자리를 만들었다.⁴³ 함께 식사도 하고, 唱夫를 초청해 공연을 즐기기도 하였다.⁴⁴ 생일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유배기간 동안 매번 반복되는 모습이었다. 지도뿐만 아니라 임자도나 목포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⁴⁵ 섬이지만 지도가 비교적 풍요로운 곳이었고, 외부와의 왕래가 용이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섬 주민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았다. 그는 수시로 인근을 돌아다니며 마을을 구경하고 해당 마을의 지역인사들과 교류하였다. 특히 笛洞 마을의 유림인 休軒 金璿基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⁴⁶ 김선기는 지도에 悅樂齋를 설립하여 후학 지도에 힘쓰는 지

36. 『續陰晴史』, 1901년 10월 24일(19일) 일기 외.

37. 황현은 지도에 유배와 있던 정병조를 만나기 위해 왔다가 김윤식을 방문하였다. 당시 黃玹은 글을 잘 쓰기로 나라 안에 잘 알려져 있었다. 특히 詩에 뛰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38. 『續陰晴史』, 1902년 10월 8일(초7일).

39. 『續陰晴史』, 1902년 10월 9일(초8일).

40. 『續陰晴史』, 1902년 10월 10일(초9일).

41. 『續陰晴史』, 1902년 10월 9일(초8일).

42. 『續陰晴史』, 1901년 7월 26일(11일).

43. 『續陰晴史』, 1901년 11월 12일(10월 초2일).

44. 『續陰晴史』, 1901년 11월 13일(초3일).

45. 『續陰晴史』, 1905년 10월 30일(초3일).

역의 유림이다. 열락재는 조선 말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유지된 지도의 대표적인 서당이었다.⁴⁷ 1905년 당시 김선기의 나이가 85세였다. 김윤식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았던 김선기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었다. 김선기가 둔곡마을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김윤식이 적동마을을 지나가게 되는 경우는 꼭 김선기의 집을 방문했다.⁴⁸ 김윤식이 지도 둔곡 마을에 자리를 잡자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이어졌다. 지역의 인사들이 인사차 방문하는 경우도 많았고, 명절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세배를 오기도 하였다.⁴⁹

김윤식은 1907년 6월 26일 서울에서 보내진 전보를 통해 자신의 해배 소식을 접했다.⁵⁰ 1907년 7월 5일 지도를 떠나는 배를 탔다. 여러 사람들이 뱃머리까지 따라와 고별의 정을 나눴다. “사람들이 다 같이 만세를 부르고 송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⁵¹ 섬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기뻐하였다.

2. 지도 유배생활의 특징

김윤식의 지도 유배생활은 비교적 평이하게 보이지만 두가지면에서 차별화 된 큰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교우관계와 관련된 것이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섬사람들과 별 거리낌 없이 친밀하게 지냈다. 그러나 교류를 통해 알고 지내는 지역민들은 많았지만, 사제관계를 맺거나 교우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배될 때 소감을 기록한 일기에 “얼굴을 아는 사람은 많으나 교우는 따로따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⁵² 지도유배시절 시문을 모은 『東菴稿』에도 지역 인사에게 보낸 글 같은 것이 남아 있지 않다. 불과 17년 전에 유배생활을 했던 김평묵이 지도에 와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지역의 유림들과 교우관계를 형성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46. 『續陰晴史』, 1905년 10월 27일(15일).

47. 羅壽佑(1926), 『全羅南道誌』, 智島郡 齋閣 悅樂齋 참조.

48. 『續陰晴史』, 1902년 6월 25일(20일).

49. 『續陰晴史』, 1904년 윤달2월 16일(1월 초1일) 일기 외. 설날에는 매년 촌인들이 세배를 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50. 『續陰晴史』, 1907년 6월 26일(16일).

51. 『續陰晴史』, 1907년 7월 5일(25일).

52. 『續陰晴史』, 1907년 7월 5일(25일).

이는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도유배시절 김윤식 자신이 이미 고령의 나이였기 때문에 직접 서당을 운영하기 어려웠고, 인근에 유사한 이유로 적거된 유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 중심으로 교우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도 유림들과 사상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지도는 1881년 김평묵이 유배생활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화서 이항로의 학맥이 전파된 지역이다. 開化를 주장한 김윤식의 사상은 위정척사의 상징인 화서와는 반대되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김평묵을 매개체로 지도 유림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최익현은 김윤식 등을 “賊臣”이라 칭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開化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이었다.⁵³ 때문에 지도 유림들과 사상과 학문적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교우관계를 맺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섬사람들과 유배인의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섬사람들의 정서와 부합하는 상호관계가 중요했다. 그러한 바탕이 있어야 해배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했는데, 김윤식은 사상적인 면에서는 지도 유림들과 소통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 때문인지 김평묵보다 김윤식이 더 후대에 오랫동안 유배생활을 했던 인물임에도 현 지도 사람들 가운데 김윤식의 존재를 기억하는 이가 매우 적다. 현재 향교에 출입하는 지도 사람들 대부분은 김평묵의 유배사실을 알고 있고 그를 숭상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김윤식의 경우는 그가 지도에서 유배생활을 했었다는 사실 자체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지도유배생활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김윤식이 유배지에서 상업 활동을 했다는 점이다. 김윤식은 유배생활에 필요한 경비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상업 활동을 시도하였다. 그는 식솔들과 함께 적거지에서 생활했다.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경비와 생필품 수급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집을 고치고 사람을 부리는 데 기본적인 비용이 지출되었다. 둔곶마을에는 뿔나무가 귀해서 인근 해제에서 뿔나무를 사서 배로 운반해와 사용했다.⁵⁴ 또한 건강상 여러 약재를 구입하는 데도 상당한 경비가 지출되었다.

『續陰晴史』에는 경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상업 활동을 시도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53. 『면암선생문집』 부록 제2권, 年譜 1894년 기록.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수록내용 참조.

54. 『續陰晴史』, 1907년 4월 28일(16일).

단서들이 남아 있다. 지역 특산품인 소금과 민어를 주로 활용했다. 지도에 함께 머물면서 김윤식의 수발을 도왔던 黃炳郁이 그러한 일을 담당하였다. 지도는 전통적으로 煮鹽 생산지였다. 현지에서 소금을 구입한 후 타 지역에 판매하였다. 그 수익금으로 유배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였다. 소금장사가 때로는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⁵⁵ 민어는 지도와 인접한 임자도가 주 생산지였고, 민어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황병욱이 직접 배를 타고 임자도 끄머리에 열리는 民魚場에 방문하여 민어를 구입한 후 적동 앞 포구로 운송해 왔다. 그 이후에는 둔곡마을 동장인 金道信이 위탁받은 민어를 자신의 배에 실어 출항하여 외지에 나가 팔아오는 형태였다. 釜州浦에 보내 판매하기도 하였고,⁵⁶ 때로는 江景 등지로도 다녔다.⁵⁷

소금과 민어 판매 외에 인근 지역에서 땅을 경작한 기록도 발견된다.⁵⁸ 1906년 7월 16일 일기에는 “해제에서 작년에 거둔 쌀을 팔아서 새로운 땅을 더 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지도와 인접해 있는 무안 해제 지역에 농지를 매입하여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맡겨 쌀을 직접 생산하고, 거기서 생긴 수익금으로 새로운 땅을 사기도 하는 흐름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김윤식은 유배시절에 직접 농지를 경영하기도 하고, 지역의 특산물을 외부로 보내 판매하는 중개무역 형태의 상업 활동을 통해 유배생활에 필요한 경비와 생활물자를 마련하였다.

기존에 알려진 섬 유배인들의 경우 대부분 서당에서 후학을 지도하는 것을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사례가 많았다.⁵⁹ 그러나 김윤식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유배지에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해 나가고 있었다. 이는 20세기 유배인이 보여주는 매우 변화된 양상이며, 물산이 풍요롭고 해로가 발달한 ‘智島’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55. 『續陰晴史』, 1906년 5월 14일(21일).

56. 『續陰晴史』, 1906년 9월 15일(27일).

57. 『續陰晴史』, 1906년 9월 28일(11일).

58. 『續陰晴史』, 1906년 7월 16일(25일).

59. 흑산도에서 유배생활을 한 정약전, 최익현를 비롯하여 지도에서 생활한 김평묵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Ⅲ. 20세기 초 도서지역의 사회상 변화

1. 지도군 설립 이후 섬사람들의 생활상

김윤식이 지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시기는 20세초에 해당한다. 지도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상에 큰 변화를 가져온 두 가지 사회적 배경이 있었다. 하나는 1896년 지도군의 설립이고, 또 하나는 1897년에 목포가 通商港으로 開港된 것이다.

먼저 1896년 지도군이 설립된 이후 생활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1896년 2월 3일 칙령 제13호로 “전주부, 나주부, 남원부 沿海諸島에 郡을 설치하는 건”이 반포되었다.⁶⁰ 이때 설치된 군은 지도군, 완도군, 돌산군 3군이었다. 지도군에는 羅州, 靈光, 扶安, 萬頃, 務安 5군에 있는 여러 섬들이 편제되었다. 섬으로 이루어진 郡을 창설한 목적에 대해 초대군수 오홍묵이 남긴 『지도군총쇄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3개 군의 신설은 특별히 섬과 육지를 평등하게 보아 똑같이 보살피겠다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다. 대저 바다 가운데 여러 섬을 陸地郡에 부속시켜 육지로 바다를 관할하게 하면 절제에 어려움이 있고 섬사람들이 陸郡에 왕래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육군 관속들이 매번 海島에 이를 때면 越海債를 받아가고 멀리하며 토색질을 자행하여 점점 도민들을 보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전주·나주·남원 관내 연해 각 군 소속 여러 섬의 結戶를 조사하고 군청을 설치하여 섬에서 섬을 도맡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진실로 시정에 맞는다 할 것이다.⁶¹

본 연구자는 과연 이러한 목적을 지닌 지도군 설립의 실효성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평소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김윤식의 기록은 이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지도는 섬이지만 비교적 정주환경이 좋은 곳이었다.⁶² 1901년 9월 1일 기록에 섬 주민들의 일상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60. 『고종실록』 34권, 1896년 2월 3일(양력) 1번째 기사.

61. 김정섭·김형만 역(2008), 『지도군총쇄록』, 신안문화원, 46쪽, 1896년 2월 6일 기록.

62. 智島는 비교적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인조실록』1627년 11월 17일 기사에 “지도가 매우 기름진 곳”이라 기록되어 있고, 『영조실록』1729년 9월 30일 기사에는 “바다 속의 섬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곧 좋은 지역이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5월부터 7월까지 보리를 먹고, 7월부터 9월까지 서숙을 먹는다. 10월부터 봄까지 쌀을 먹으니 세 시기의 추수에 족히 양식을 이을 수 있다. 목화를 심어 베를 짚으로 써 옷을 만들어 입고, 소금을 구워 돈으로 바꿔 세금을 낸다. 부속 섬들이 대개 그러하니 집과 사람마다 풍족하다.⁶³

일상적인 모습에서 큰 불편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유배시절 지은 <智島菴谷村>이라는 詩에는 섬 주민들의 전통적인 일상과 그에 대비되는 근황이 종합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주목된다.⁶⁴

鐵馬山 아래 菴谷村은 집집마다 대나무 울타리가 있고, 출입문은 없다. 시집가면 십리 밖을 나가지 않는다. 한 해 살림이 농사와 베 짜는 것으로 넉넉하다. 오월에는 보리, 칠월에는 조를 거둔다. 시월에는 벼를 수확하니 술이 술통에 가득하다. 팔월 구월에는 목화가 하얗게 피니, 찰찰 베를 짜는 소리 사방에 그치지 않는다. 썰물 때 그물에 잡힌 물고기는 사람들이 함께 취하고, 새우와 게가 광주리 가득하니 그 가치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촌민들은 그물을 설치해 놓고, 썰물 때에 그물을 올려서 고기를 잡는다. 너나없이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며, 비록 지나가는 나그네가 잡아 가더라도 금지하지 않는다. 매매를 생각하지 않고, 마을사람들의 스스로의 반찬으로 삼는다.

근래에는 세금으로 징수해가는 것이 끝이 없어, 관리를 만나면 원숭이처럼 놀란다. 줄줄이 내려온 서울 벼슬아치들은 저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한 재원마련이라고 한다. 염전과 어장은 이리하여 날로 쓸쓸해지고, 대나무 세공업자들도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오직 토지만은 차마 버리지 못해 농사짓지만, 疊稅가 고슴도치 털처럼 많다.(이하생략)

시의 전반부는 섬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대한 묘사이다. 사람들은 대나무 울타리를 치고 살았으며, 출입문을 따로 설치하지는 않았었다. 혼인 한 여자는 10리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풍습이었다. 지도는 섬이지만 농사와 목화 생산 등으로 비교적 풍요로운 곳이었다. 철마다 보리·조·벼를 수확하여 1년을 보냈으며, 가을에는 목화를

63. 『續陰晴史』, 1901년 9월 1일(19일).

64. 『雲養集』卷之六, 『東菴稿』, 智島菴谷村; 김상수 역(2004), 『운양시선집』, 이회, 421-422쪽. 일부 번역내용을 수정하여 제시하였음.

따서 천 짜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흔히 ‘어살’이라 불리는 마을 공동그물 운영에 대한 설명은 지도 사람들의 넉넉한 생활환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확물은 마을 사람들이 사이좋게 나뉘었으며, 외부인이 가져가더라도 막지 않았다. 판매용이 아니라, 주민들의 반찬용으로만 사용되었다. 어촌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그물만 쳐 놓으며 물고기들이 풍족하게 잡혔다. 그러한 환경에 기반한 섬 주민들의 공동체 문화가 엿보인다.

그런데 이 시의 말미 내용에는 섬 문화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담겨 있다. 세금정수가 끝없이 이어지면서, “섬사람들이 관리만 보면 원숭이를 보고 놀라는 듯 한다”는 것이다. 국가 재원을 마련한다는 빌미로 각종 세금을 이중 삼중으로 걷어 가는 상황이 발생하여, 섬 주민들의 생활상은 점점 황폐해 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도군을 설립한 목적과는 상반된 것이다. 섬 주민들은 각종 疊稅와 관리들의 폭압에 더욱 시달리게 되었다. 그 결과 1902년 임자도에서 민란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續陰晴史』에는 임자도 민란의 동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1901년 9월 1일 기록에서부터 임자도 주민들이 수령의 침탈로 인해 흩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잡세의 종류가 많아 끝이 없고 일호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십 여차에 이르며, 세금 걷는 관리의 왕래가 끊이지 않는다. 또 수령과 이속의 침탈은 屬島가 더욱 심하니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없다. 임자도와 같이 백성이 집을 버리고 이산하는 경우가 많으니 어장 및 소금가마 또한 많이 버려진다.⁶⁵

임자도 토호 세력과 관리들이 결탁하여 섬 주민들의 생활이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鄭駿逸이 관의 명령을 끼고, 목포 巡檢을 불러서 민간에 각종 세금을 마구잡이로 거두어 들였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민가에 난입하여 곡물은 물론 가축과 살림살이 등을 수없이 담아갔다. 당시 임자도 내 각동에 7백여 호가 있었는데, 집을 버리고 흩어지는 사람들이 많아 남은 사람들은 몇 백호가 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다 못한 임자도 주민들이 연대하여 1902년 7월에 군중봉기를 일으켰다. 모인 무리가 수천이었다. 주민들은 巡檢을 내쫓고, 土豪 鄭駿逸과 李聖直의 집을 불을 질렀다.⁶⁶ 임

65. 『續陰晴史』, 1901년 9월 1일(19일).

자도 사람들은 현명한 관리가 와서 이 일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윤식은 “농사의 형편을 살펴보니, 도처가 풍년이나 섬사람들만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근심을 당하여 유리걸식하는 모습이 참혹하다”고 당시 상황을 기록하였다.⁶⁷

결국 1903년 3월 임자도 주민들이 섬을 떠나 직접 관찰사에게 호소하기 위한 길을 나섰다. 김윤식은 임자도 사람 4-5백 명이 섬을 떠나 둔곡 마을 앞을 지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온 섬이 소란하여 백성들이 삶을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이었다. 노약자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 말린 식량을 싸서 광주로 향하고 있었다. 觀察使에게 호소하여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장차 경성까지 갈 예정이었다. 밥을 굶으며 가야 하는 상황이라 도로에서 죽는 사람이 발생할 것이 자명했으나, 임자도 사람들은 그러한 괴로움은 달게 여기겠다고 자세였다. 그만큼 임자도 내의 상황이 처참했기 때문이다.⁶⁸

원래 임자도는 매우 풍요로운 섬이었다.⁶⁹ 김윤식은 1902년 8월 18일 기록에 “임자도는衣食과百物은 모두 외부 것을 쓰지 않는樂土”라고 표현하였다. 그런데 “몇 년 사이 관리 순검의 侵虐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다.”고 급변하는 섬 상황에 대해 탄식하였다.⁷⁰ “임자도에서 민란이 일어난 일은 옛적부터 들어본 일이 없다고 한다.”고 기록했을 정도로 임자도는 평화롭던 섬마을이었다.⁷¹ 그러나 지도군 설립 이후 관리들의 폭압으로 섬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공간을 스스로 버리려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임자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섬이 같은 근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⁷²

66. 『續陰晴史』, 1902년 7월 8일(초4일).

67. 『續陰晴史』, 1902년 7월 27일(13일).

68. 『續陰晴史』, 1903년 3월 21일(23일).

69. 이 점에 착안하여 정진영은 다음의 논문에서 임자도가 조선후기에 매우 풍요로운 섬이었음을 분석한 바 있다. 2013, “섬, 풍요의 공간-19세기 중반 한 유배객의 임자도 생활”, 『古文書研究』, 43, 한국고문서학회.

70. 『續陰晴史』, 1902년 8월 18일(15일).

71. 『續陰晴史』, 1902년 7월 8일(초4일).

72. 『續陰晴史』, 1903년 3월 21일(23일).

부조리한 관리들뿐만 아니라 섬 주민들을 노략질하는 水賊들도 들끓었다. 섬을 노략질하는 수적 때가 바다에 가득했으며,⁷³ 심지어 1906년 7월 18일 일기에는 수적들이 지도 안으로까지 들어와 수탈을 일삼으니 마을 사람들이 편안히 잠을 자지 못한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⁷⁴ 수적에 대한 내용은 지도 유배시절 기록 전반에 걸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벌목으로 섬 지역 산에 울창했던 소나무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민둥산으로 변해버리는 상황도 나타났다. 「東菴稿」에 수록된 <山木歎>이라는 시에 당시 상황이 잘 표현되어 있다. 김윤식이 처음 지도에 왔을 때는 사방에 소나무가 무성했는데, 몇 해가 지나지 않아 곳곳의 산들이 대머리 민둥산이 되어버렸다. 지도는 예부터 소금 굽는 고장으로 언덕이나 산에 나무가 울창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런 계획 없이 당장 눈앞에 나무를 베기에 급급했다. 이에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원망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⁷⁵

새로 유입된 문화와의 충돌 현상도 발견된다. 1901년 발생한 ‘智島教案’ 사건이 주목된다. ‘教案’은 1866년 천주교회가 포교의 자유를 획득한 이후 교세를 획득한 과정에서 주로 20세기 초에 발생한 천주교민과 지방관리·주민 사이의 분쟁사건을 말한다.⁷⁶ ‘지도교안’ 사건의 개요에 대해 1901년 9월 4일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프랑스교도들이 프랑스선교사 曹神父에게 하소연하였다. 조신부가 교도들을 거느리고 지도읍에 들어왔다. 그의 福師는 우리나라 사람이다. 본관과 말하면서 매우 불손하여 본관이 크게 화를 내었으나 어찌 할 수 없었다. 지도군에서는 교도 중 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자 두세 명을 가두었다. 복사가 석방해줄 것을 청했으나, 본관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곧 광주로 출발하였다. 官屬이 복사의 무례에 분을 품고 무리를 모아 심하게 때려, 하제가 상하고 파손되었다. (중략) 후환이 염려된다.⁷⁷

73. 『續陰晴史』, 1906년 7월 30일(초10일).

74. 『續陰晴史』, 1906년 7월 18일(27일).

75. 김상수 역(2004), 앞의 책, 459-463쪽 국역문을 참조하여 정리함.

76. 고석규(2003), “20세기 자은도의 시련과 화해”, 『도서문화』, 21,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46쪽.

77. 『續陰晴史』, 1901년 9월 4일(22일).

사건은 지도군 자은도에 속한 조선인 천주교인들이 지도군에서 징수한 세금 납부를 거부하면서부터 출발했다. 자은도 천주교도들은 지도군 관속들이 지나치게 과다한 각종 세금을 징수하여 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천주교 프랑스신부에게 하소연하였다. 목포 천주교당 조신부(Albert Deshayes)⁷⁸는 이를 항의하기 위해 신도들과 함께 지도군을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조신부를 수행한 조선인 福師를 지도군 관원들이 구타하면서 사건이 확대 된 것이다.

그 후 목포 조신부는 전보로 서울교당에 이 사건을 알렸다. 법부에서는 목포에 전보로 훈령을 보냈고, 결국 木浦 巡檢들이 지도읍에 들어가서 福師를 구타한 지도군의 관원 鄉長 吏房 이하 6명이 잡아오게 되었다.⁷⁹ 이 일로 향원 黃健周 등은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졌다. 김윤식은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 “프랑스인의 세력이 성하여 감히 어길 수 없어서 이처럼 지나친 벌을 당하게 되었으니 탄식할 일이다.”고 기록하고 있다.⁸⁰ ‘지도교안’은 표면상 천주교회와 지방관 사이의 갈등이 주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이다. 그 내면에는 이 시기 도서지역에 새로운 종교의 유입이 이루어졌고, 20세기 초 각종 세금으로 섬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황폐해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담겨 있다. 지도군의 설립은 섬 주민을 보호한다는 당초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졌음이 ‘지도교안’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섬 주민들은 새로운 보호세력이 필요했고, 외래종교가 그 틈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2. 목포개항의 영향과 근대화

다음으로 검토할 부분은 1897년 목포가 개항된 이후 지도 지역 사회상에 미친 영향과 관련된 문제이다. 원래 지도는 전통적으로 인근 내륙인 무안 해제와 연계된 생활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목포가 개항된 이후 그러한 양상에 변화가 나타났고, 근대 문물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되는 기록들이 『속음청사』에 담겨 있다.

김윤식은 외딴 섬에 살면서도 국내외 정세와 사회상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유배인의 기록임에도 일기에 관련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남아 있다. 그 이유는 지

78. Albert Deshayes(1871-1910)는 목포 천주교 성당의 초대 신부로 활동했던 프랑스인이다.

79. 『續陰晴史』, 1901년 9월 11일(29일).

80. 『續陰晴史』, 1902년 10월 5일(초4일).

속적으로 신문을 살펴봤기 때문이다. 1896년 무렵부터 국내에도 일간지가 발간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여러 종류의 신문이 발간되었다. 각종 신문에 나오는 시사적인 내용들을 꼼꼼하게 일기에 기록하고, 자신의 견해를 곁들였다. 신문의 내용을 탐독하는 것이 유배시절 중요한 일상 중 하나였다. 중앙정치에서 벗어나 섬 마을에 유배되어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유롭게 변화하는 사회상에 대해 성찰하고, 자신의 일기에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1901년 7월 15일 지도에 도착한 후 10일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황성신문’을 보았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다.⁸¹ 『속음청사』에는 국민신문·대동신문·대한매일신문·목포신문·제국신문·한성신문·황성신문 등 여러 종류의 신문이 언급되고 있다. 이 시기부터 섬마을에도 신문이 보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남해의 섬에 신문 보급이 가능했던 것은 1897년 목포가 개항되면서 연안항로가 발달하게 된 영향이다.

개항 후 汽船이 발달하면서 목포항과 주변 다도해를 연결하는 해상네트워크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여러 종류의 기선회사들이 등장했는데, [표 1]은 1914년 발간된 『목포지』에 실린 목포우선주식회사 목포기점 항로표 중 智島를 경유하는 노선이다.

[표 1] 朝鮮郵船株式會社 木浦起點航路 중 지도 경유 노선

| 항로 | 운행빈도 | 주요경유지 |
|---------|--------|---------------------|
| 木浦-群山線 | 매일 8회 | 지도, 법성포, 줄포, 위도, 군산 |
| 木浦-荏子島線 | 매일 10회 | 자은도, 지도, 임자도 |

자료 : 목포지편찬회(1914), 『목포지』, 325쪽에서 부분 인용.

김윤식이 유배생활을 했던 시기보다 약 7년 뒤의 통계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한 달에 18회 정기적으로 우편선이 지도를 왕래하고 있었다. 우선주식회사 외에 다른 기선들도 다녔기 때문에 목포와 지도를 연결하는 선박의 수는 더 빈번했을 것이다.

목포는 개항 이후 상권의 중심지 역할 뿐만 아니라, 주변 다도해에 정보와 물류를 공급하는 거점으로서 기능도 겸비하였다.⁸² 서남권의 섬들은 목포에서 출발한 기선을

81. 『續陰晴史』, 1901년 7월 25일(초10일) 일기 외 다수의 기록에 신문 내용에 대한 글이 실려 있다.

통해서 외부와 소통할 수 있었다. 『속음청사』에는 ‘輪船’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다. 목포에서 오고가는 배에 대한 이야기가 빈번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 배를 통해 신문이 지도에도 전달될 수 있었다.

신문뿐만 아니라 지인들과 소식을 주고받는 방법도 편리해지고 빨라졌다. 1897년 12월 25일 목포항에 무안우체사가 설치되었고, 이듬해 1898년 2월 7일 무안전보사가 병설되었다.⁸³ 이로 인해 우편집배원 제도가 섬마을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속음청사』에는 목포 우편집배원이 지도에 들어와 편지와 함께 외부 소식을 전해주는 상황들이 잘 남아 있다.⁸⁴ 편지보다 더 빠른 통신 수단인 ‘電報’도 활용되기 시작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지도 유배인에게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빨리 전달하는데 전보가 이용되었다. 전보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곳은 목포였다. 서울에서 개항장 목포로 전보를 보내고, 목포에서 지도를 경유하는 배를 통해 그 전보가 유배인 김윤식에게 전달되는 방식이었다.⁸⁵ 1907년 6월 김윤식이 해배되었다는 소식도 전보를 통해 처음 김윤식에게 전달되었다.⁸⁶

이렇듯 목포의 개항은 섬사람들의 생활문화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그 전에 지도 사람들은 인근 내륙인 무안 해제를 통해서 생활물자와 외부 소식을 공급받았는데, 목포개항 이후에는 목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상황이었다. 밥상과 그릇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자도 목포에서 사가지고 왔다.⁸⁷ 멀리서 김윤식을 만나기 위해 왕래하는 사람들도 목포를 통해서 출입하는 양상이었으며, 목포의 주사·순검·객주 등과도 왕래가 이어졌다.⁸⁸ 해배될 때도 먼저 목포로 이동하여, 목포에서 군산을 거쳐 인천으로

82. 목포 개항이후 해상네트워크에 대한 문제는 필자의 줄고 “開港初期 木浦港의 日本人과 海上 네트워크”(2012, 『한국학연구』 26, 인하대 한국학연구소)를 참조하기 바람.

83. 木浦府史編纂委員會(1930), 『木浦府史』, 木浦府, 308쪽.

84. 최성환 외 역(2010), 『김윤식의 智島流配日記』, 신안문화원, 48쪽 1901년 8월 7일 일기 외 여러 기록에서 확인된다.

85. 『續陰晴史』, 1901년 8월 16일(초3일) 일기에 전보를 받았다는 내용이 등장하며, 이후 기록에도 여러 차례 남아 있다.

86. 『續陰晴史』, 1907년 6월 26일(16일).

87. 『續陰晴史』, 1901년 7월 22일(초7일).

88. 『續陰晴史』 전체에 그러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목포순검 曹星翼, 목포 객주 洪莊賢 등이 만나러 왔으며, 목포 무안감리의 주사들과는 편지 왕래가 있었다.

가는 배를 타고 귀경하였다.⁸⁹ 섬사람들에게 목포에서 출발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배는 그들의 생활물자를 공급하는 생계의 수단이자, 외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 개항이후 목포항과 다도해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가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목포개항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었다. 앞에서 설명한 입자도 민란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지역의 향리들이 목포에서 순검을 데려다가 섬 주민들을 착취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입자도가 지도군 관할 지역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식에서 벗어난 상황이다. 1905년 4월 17일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목포의 상황이 언급되어 있다.

목포 일본 영사는 우리 백성의 詞訟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다. 각 읍에 巡査를 파견하니 기세가 맹호와 같아서 감히 누구도 어찌할 수 없었다. 모리배와 품성이 불량한 사람들은 시장처럼 분주하다. 뇌물을 바치는 문을 크게 열고 거리낌 없이 공공연히 행하니 각 읍의 밥 먹고 사는 백성은 뜻밖에도 무고한 재앙을 당하여 모두 탕진을 하게 된다. 監理 韓永源은 오직 명하는 대로 좇아 그 나머지 이익을 점하니 백성은 고소할 곳이 없어 슬프다.⁹⁰

1905년 4월은 韓日協商條約이 맺어지기 전이고, 일본은 목포에서 영사관 업무를 수행하던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의 일본영사가 각 읍 단위까지 순사를 파견하여 권력을 남행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 도서지역까지 식민지 침탈의 양상이 확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한편, 김윤식 유배시절 기록에 담긴 섬 사회상 중 ‘근대화’라는 측면에서 가장 시사성이 있는 변화는 교육시설과 관련된 것이다. 김윤식이 머물던 시기에 근대식 교육기관인 ‘智明學校’가 설립되었다. 김윤식은 섬 마을에 조성된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수시로 방문하였으며, 학교 교사들을 격려하기도 하였다. 『속음청사』의 기록은 智明學校 창립 시기의 상황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지명학교는 현 지도초등학교의 전신에 해당된다. 지도초등학교에서 발간한 『智島初等學校百年史』에는 1909년 6월 22일 지명사립학교로 개교했다고 언급되어 있다.⁹¹

89. 『續陰晴史』, 1907년 7월 8일(28일).

90. 『續陰晴史』, 1905년 4월 17일(13일).

91. 智島初等學校·智島初等學校總同門會(2010), 앞의 책, 97쪽.

김윤식의 기록을 보면 이 학교의 연혁은 그 보다 더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1905년 5월에 지도군수에 의해 학교에 대한 설치가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음은 『속음청사』에 언급된 학교설립 관련 기록 중 가장 빠른 시기의 것이다.

본관이 읍내에 학교 설치를 의논하였다. 학교 생도에게 일본말을 가르칠 참위 김형 섭을 초빙하여 교사로 삼았으나, 마을사람들은 일의 내막을 알지 못하고, 대부분 피하려고 하여 한사람도 응모하는 자가 없고 오로지 읍내의 아전과 군교의 자손 5-6명 뿐 이었다. 나는 적동 김경우를 만나 그로 하여금 학교에 나아가도록 권하였다.⁹²

설립직후 학교의 운영은 순탄하지 않았다. 교사를 맡은 金亨燮은 지도에 유배된 사람이었는데, 학교 운영을 시작하자마자 방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김윤식은 이로 인해 학교가 중도에 폐교될까 매우 염려하였다.⁹³ 그러나 학교는 지속되었고, 1년 후에 학교가 꽤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다음은 1906년 10월 22일 일기에 기록된 지명학교의 시험일 풍경이다.

금일 읍의 서쪽 智明學校의 가을 시험이다. 학도들이 시험 보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학도는 대소 30명으로 어린 아이는 7-8세부터 많게는 20세까지이다. 시험은 일어와 산술이고 모두 능력의 차이는 없다. 시험을 마치고 운동장으로 나가 좌우로 무리를 나누었는데, 나누고 합하고 나아가고 물러남이 가지런하고 조리가 있었다. 학도 중에 군악대가 있었는데 일본 교사가 교습시킨 것이다. 운동에는 아홉 가지가 있었는데 1.음악, 2.줄다리기[綱引], 3.깃대뽑기[旗取], 4.2인3각(二人三脚), 5.장애물 경기[防碍經過] 6.등돌고 달리기[提燈競走], 7.줄넘기[跳索], 8.음악(音樂), 9.공선(空船)이다.⁹⁴

이 기록에서는 ‘智明學校’라는 구체적이고 고유한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 일기의 내용을 보면 지명학교가 전통적인 서당 교육의 형태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윤식의 지도유배 시절 기록에는 지명학

92. 『續陰晴史』 1905년 5월 13일(초10일).

93. 『續陰晴史』, 1905년 5월 16일(13일).

94. 『續陰晴史』, 1906년 10월 22일(초5일).

교에 대한 기록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으며, 해배될 당시에 지명학교 학생들이 뱃머리까지 나와 배웅했다는 내용도 남아 있다.⁹⁵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현 지도초등학교의 연혁은 적어도 4년 정도는 앞당겨져야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명학교는 섬으로 이루어진 현 신안군 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된 근대식 교육기관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반면, 지명학교의 교육 내용을 보면 이 시기부터 섬 지역에도 식민지 교육이 시작되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일본어가 주요 교육내용 중 하나였고, 일본인 교사도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⁹⁶ 일본인 교사는 목포에서 초빙되어 왔다.⁹⁷

원래 지도지역에는 서당식 교육이 존재했었다. 1896년 지도군이 설립된 이후 초대 군수로 지도군에 부임한 오형묵의 경우는 향교 교육시설인 양사재를 설립하기 위해 많은 공을 기울였다.⁹⁸ 그런데 불과 10년 후에 근대적인 교육시설인 지명학교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었음을 상징한다. 10년의 차이지만 섬 지역에도 새로운 문화가 수용되고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IV. 맺음말

김윤식이 지도유배시절 남긴 기록물을 분석하여, 20세기 초 도서지역 유배인의 구체적인 생활양상과 사회상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김윤식의 유배시절 일상과 함께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발견한 것이 수확이었다. 첫째는 섬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냈으나 제자를 육성하거나 교우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그의 사상적인 면모가 직전 시기에 유배 와서 화서의 학맥을 전파한 김평묵과 대립되는 위치였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하였다. 섬사람들과 유배인의 교류관계가 일

95. 『續陰晴史』, 1907년 7월 5일(25일).

96. 김윤식은 일본인 교사가 조선인들의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거부감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일기에 그러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개화론자의 면모가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97. 『續陰晴史』, 1907년 6월 17일(초7일).

98. 吳玄默이 남긴 정무일기인 『智島郡叢瑣錄』에 관련 내용이 상세하게 남아 있다.

방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둘째는 유배지에서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상업 활동을 전개했다는 점이다. 지도 지역의 특산물인 소금과 민어를 구입하여 타 지역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경비로 활용했다. 이는 전통적인 유배인의 모습과는 달라진 20세기 유배인의 새로운 유형이다.

『속음청사』의 내용을 통해 20세기 초 도서지역의 변화하는 사회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섬사람들을 위해 설립된 지도군이 오히려 주민들의 생활상을 더욱 궁핍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1902년에 발생한 임자도 민란 사례 등을 통해 그 구체적인 상황을 살폈다. 새로 유입된 문화와의 충돌 현상도 나타났다. 1901년 발생한 ‘智島教案’ 사건이 그러한 경우였다. 반면 목포 개항은 섬사람들의 생활권과 근대문물의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 목포와의 왕래가 빈번해졌고, 우편·전보 활용, 신문 보급, 기선의 정기 운항 등 변화가 나타났다. 근대문물과 관련하여 이 시기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근대적인 교육기관인 지명학교가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불과 10년 전 초대군수였던 오형묵이 전통교육인 향교에 힘을 기울였던 것과는 큰 대조를 보였다. 이는 섬 지역에도 근대적인 교육시설이 보급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식민교육의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

『續陰晴史』.

『雲養集』.

김상수 역(2004). 『운양시선집』. 이회.

김정섭·김형만 역(2008). 『지도군총쇄록』. 신안문화원.

김정섭·김형만 역(2011). 『頭流壇實記』. 신안문화원.

김희동(2003). 『선화자 김약행 선생의 꿈과 생애』. 목민.

羅壽佑(1926). 『全羅南道誌』.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2003). 『흑산도 유배문화공원조성 학술조사보고』.

목포부사편찬위원회(1930). 『木浦府史』, 木浦府.

지도초등학교·지도초등학교충동문화회(2010). 『智島初等學校百年史』.

최성환 외 역(2010). 『김윤식의 지도유배일기』. 신안문화원.

고석규(2003). “20세기 자은도의 시련과 화해,” 『도서문화』. 21,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46-48.

- 김경옥(2010). “조선시대 유배인의 현황과 문화자원의 활용 -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40, 호남사학회, 150-156.
- 장선영(2001). “조선시기 流刑와 絶島定配의 推移,” 『지방사와지방문화』. 4-2, 역사문화학회, 186-189.
- 정진영(2013). “섬, 풍요의 공간 -19세기 중반 한 유배객의 임자도 생활-,” 『古文書研究』. 43, 한국고문서학회, 260-262.
- 최성환(2010). “유배인 김약행의 <遊大黑記>를 통해 본 조선후기 대흑산도,” 『한국민족문화』. 36, 부산대 민족문화연구소, 163-171.
- _____(2011). “조선후기 추자도 유배인의 추이와 생활양상,” 『도서문화』. 37, 목포대 도서관화연구원, 176-183.
- _____(2014). “頭流壇을 통해 본 金平默의 智島 유배생활: 그 소통과 영향,” 『민족문화논총』. 56,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461-469.

■ Abstract ■

Kim Yunsik's Life during His Exile in Jido and the Change in Island Society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Seen with 『Sokeumcheongsa』

SUNG-HWAN CHOI***

This article analyzes late Joseon's political thinker Kim Yunsik's diary 『Sokeumcheongsa』 centering around the records about his exile in Jido, considering the lives of exiles in islands and the change of society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Kim Yunsik was exiled at Dungok Village in Jido from 1901 till 1907. This period is highly noticeable because Jido-gun was established in 1896 and it was right after Mokpo Port was opened in 1897. Kim Yunsik had no inconvenience for the supervision or control, but there were two things that made his exile different from that of others. First, though he lived closely with the people of the island, he neither cultivated disciples nor formed friendship. It was because his ideas were rather contrastive with the academic lines of Jido people. This is a very meaningful example that shows exchange between island people and exiles was not unilateral then. Second, to earn money to live in the place of exile, he developed commercial activities aggressively.

*** NATIONAL MOKPO UNIVERSITY

He used salt or croakers, specialty products of the region. This is fairly different from other island exiles who had been there before. With 『Sokeumcheongsa』, the study also examined how the island society changed in the early 20th century. After Jido-gun was established, the residents' living conditions became even poorer. There were the 'Jidogyoan' in 1901 and the Imjado Uprising in 1902. Meanwhile, opening the port of Mokpo did influence the island people's lives significantly. There were a lot of comings and goings between Jido and Mokpo, and also modern goods were supplied. And the most symbolic change was the building of Jimyeonghakgyo, a moder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This is very contrastive with just 10 years before when Oh Hoengmuk, the first gusu, made all efforts for Hyanggyo.

Keywords : Kim Yunsik, 『Sokeumcheongsa』, exile, Jido, opening the port of Mokpo, Imjado Uprising, island

■ 논문투고 : 2014년 4월 30일 논문심사 : 2014년 5월 16일-6월 2일 게재확정 : 2014년 6월 10일

